

행복도시 세종!

시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5. 8. | 통권 제8호 |

# 세종의회 연석

시민과 함께하는  
Sejong City Council



## 인사말

지난 1년간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님과 최고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숙여 인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그 뜻을 받드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원한지 1년을 맞아 새로운 전환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기관 3단계 이전이 마무리되고 명실공히 정부세종청사시대를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세종시의회는 숨가쁘게 달려온 여정이었습니다.  
행복도시 세종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의정역량을 결집하고 현장에 찾아가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균형의회, 현장  
의회, 연구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다가가 발벗고 해결하는 소통의회, 민생의회에 주력하고 주민의 삶이 윤택하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세종시의회는 명품 세종시를 만드는데 발벗고 나서야겠으며 광역의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상전**



|                  |    |
|------------------|----|
| 세종의정 소식          | 02 |
| 긴급현안 질문          | 13 |
|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 |
| 5분 자유발언          | 28 |
| 주요안건 처리 현황       | 32 |
| 결의문 및 건의문        | 40 |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 42 |
| 언론에 비친 세종시의회     | 49 |
| 세종시 가볼만한 명소      | 52 |

# 세종의정 소식 SEJONG News

## 편안한 노후생활을 제공할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필요

###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 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등 15명은 4월 7일 제2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전국 최고의 명품 복지단지로 부각되고 있는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과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을 현장방문하였다.

어메니티 복지마을은 노인복지관과 요양시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및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등이 단지화된 시설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충열 위원장은 “금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금년 8월 우리 세종시에 준공예정인 청소년 수련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 노인들의 주거와 의료, 문화, 그리고 경제활동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지화를 통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리도 장기적으로 노인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 노력,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 해야

### 이태환 의원,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주민설명회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태환 의원은 4월 17일 오후 2시 조치원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주최로 열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주민설명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날 주민설명회에서 ▲백기영 영동대 교수가 ‘세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정재희 홍익대 교수는 ‘세종시 활성화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이우중 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주재하였으며,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원, 최봉문 한남대 교수, 강인호 한남대 교수, 이충한 조치원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의 토론자들이 열린 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태환 의원은 “역설적으로 지난 2012년 7월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탄생한 세종시에서 읍면지역과 건설지역 간의 발전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 며 “읍면지역, 특히 지역을 지켜야 할 조치원읍의 젊은 세대들이 교육문제, 취업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을 떠나고 있어 지역발전이 점점 요원해 지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지역인재를 채용할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조치원읍을 비롯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세종시만의 독특한 아이템 개발과 전통 시장 등 지역자산의 특성을 잘 살리는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 연탄공장의 모범적인 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공장운영개선 및 이전방안 수립

###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은 4월 20일 대전시 대덕구 (주)흥진에너지, (주)세창글로벌과 충북 음성군 (주)경동개발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시와 유사 여건을 가진 인근 시도의 연탄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분진 등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운영실태와 주민갈등 해결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연구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 의원은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조치원읍 도심 중앙에 위치한 연탄공장의 연탄 분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건강을 위협받는 등 쾌적한 주거권 침해는 물론, 도시개발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과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간접적으로 받아왔다” 면서, “이번 이들 세 개 지역의 연탄 공장의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견학하는 등 벤치마킹을 통해 공장운영개선



및 이전 방안수립 등을 위한 폭넓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지난 2월 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약 10개월 동안 활동할 계획이며, 조치원읍 연탄공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도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변지역 개발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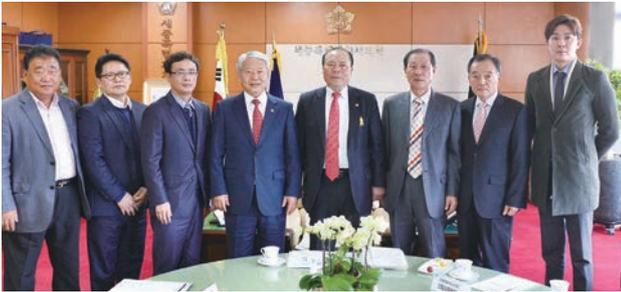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4월 21일 오후 4시 의장실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으로는 대표 위원인 서금택 의원과 이경대 의원 그리고, 조명희 회계사, 김일중 세무사, 황철민 회계사, 이유찬 전 세종시 자치행정과장, 한경전 전 연기군 사회복지과장 등 총 7명이며, 결산검사위원들은 2014년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하였다.

결산검사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으로 ▲세종시청에 대하여는 5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고, ▲세종시교육청에 대하여는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임상전 의장은 위촉식에서 “그동안 우리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로 출범 한 지 얼마 안되었고, 예산회계의 계수추정이 잘못되어 예산편성 및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미비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세종시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알려 적극적

으로 시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결산검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 풀뿌리자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세종시 연봉초등학교, 세종시의회 방문, 어린이의회 직접 체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4월 22일 오전 9시 30분 의회 본회의장에서 세종시 연서면 연봉초등학교 4학년 학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 어린이의회를 열어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리더십을 훈련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열린의회를 지향하는 의정방침에 따라 처음으로 맞는 어린이들에 대한 개방으로, 이 날 체험행사는 각각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

로 국기에 대한 경례, 어린이 의원 소개, 어린이 의원선서, 윤희권 부의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하였고,

▲2부에서는 학생들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시장, 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본회의의 개의, 의사보고, 2분 발언, 시정질문 및 답변, 안건 제안설명 및 토론 순 등 실제 의회회의 운영방식과 똑같이 진행되는 모의의회를 체험하였다. 이어서 본회의를 체험한 후 의원과 어린이들간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의장을 대리한 윤희권 부의장으로부터 세종시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 및 역할, 자치민주주의 기본원리 등에 대해 배웠다.

이 자리에서 윤희권 부의장은 “학생 여러분들은 세종시의 꿈이자 희망” 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의미있는 의회체험 교육을 계기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해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고 학생들을 격려하였으며, 한편, 연봉초등학교 지역대표의원인 김선무 의원도 “지역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 줄 것”을 격려했다.

### 향후, 「세종시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토대 마련

### 환경교육 연구모임 ‘유엔지속가능발전 교육 통영센터’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대표 정준이 의원)에 서는 지난 4월 24일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와 우리 시에 적합한 환경교육 전략수립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엔지속가능발전 교육 통영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의 기능과 역할, 통영 RCE 자연생태공원 설립 과정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RCE’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구현에 필요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확산을 위해 유엔대학(UNU)에서 세계 각지에 조직한 지역전문

교육센터이자 지역 전문기관들의 네트워크로 2015년 3월 현재 전 세계 135개 RCE도시가 있으며 국내에는 4개소로 통영시가 2005년 세계 8번째 RCE로 지정된 바 있다. 대표의원인 정준이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커감에 따라 자원 절약과 자원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원재활용을 시민생활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보다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번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시 환경교육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알찬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세종시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즐거운 캠핑이 되도록 각종 안전사고 예방 철저 당부

### **임상전 의장, 합강오토캠핑장 시설 안전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5월 1일 오후 2시 세종시 연기면에 소재한 합강오토캠핑장을 방문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캠핑장을 둘러보며 이용객으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상전 의장은 “캠핑장에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미래 과학자로서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

### **임상전 의장, 세종 영재 멘토링 및 재능 기부 격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5월 10일(일) 오후 5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세종시의 초·중등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열린 「세종 영재 멘토링 및 재능 기부 행사」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임상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멘토링과 재능 기부를 통해 학습 향상은 물론 미래 과학자로서 꿈과 희망도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회에서도 교육청과 함께 세종시의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잠재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으로 의정활동 활성화 기대

### 2015년도 상반기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5월 11일 10시 3층 소회의실에서 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의원의 조례 입안 및 의안심사 등 원활한 자치입법 활동 능력을 제고하고, 법률적 사안 처리 등 실질적인 입법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특강과 함께 입법고문·고문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의정연수와 간담회를 겸한 자리에서 1부에서는 주영진 입법고문(前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부터 제30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열릴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에 대한 기법을 전수받았으며, 이어진 2부에서는 최민수·주영진 입법고문, 배철욱 고문변호사로부터 당면한 지방의회 역량의 강화와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의안심사·처리 및 입법에 관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자문하였다. 임상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는 출범한 지 2년이 조금 넘어 여러 가지로 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 의회의 활발한 입법 활동과 관련된 법률적 해석 등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세종시의 U-city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첨단 정보화 도시 건설에 도움이 될 것

### 인도네시아 반둥시 관계자 세종시의회 내방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5월 13일 오전 11시 인도네시아 반둥시 Meivy Adha Krisnan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14명의 방문단 내방을 받았다.

이번 내방은 지난 2006년 도시설계과정에서부터 U-city의 개념을 도입해 ‘최첨단 지능형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있는 세종시의 U-city 추진현황, 사업모델 및 성과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의회 내방 후에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U-city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밀마루전망대와 세종정부청사, 세종호수공원, 국책연구기관, 촉지관측센터를 차례대로 방문하였다. 임상전 의장은 반둥시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반둥시 관계자의 방문은 세종시의 위상이 국제적인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도시 기반시설에 IT 기술을 적용하여 교통·안전·환경·교육 등 양질의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 정보화 도시를 건설하는 우리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2016년에 상반기에 테크노폴리스를 개장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성공적인 ICT 클러스터들을 보고 배우고 있는 반동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철저한 총기 관리와 안전조치 점검 필요 임상전 의장, 예비군훈련장 시설 안전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5월 15일 오전 10시 전동면에 있는 예비군 교육훈련장을 방문하여 예비군훈련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임상전 의장은 “지난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사격장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으며, 더구나 사격통제 장교와 조교가 아무런 제압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에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철저한 총기 관리와 안전조치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후한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안전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개선·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소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 이익을 공유해야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5월 2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고도 성장으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결의안에서는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한 제정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박영송 의원은 “극심한 사회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정착과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전국의 지방의회에 연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배움과 성장이 함께 성장하는 세종형 혁신학교 구축

### 교육위원회, 경기도 혁신학교 흥덕고등학교 벤치마킹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영송) 위원과 교육청 관계자 등 17명은 6월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혁신학교인 흥덕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흥덕고등학교는 2010년 3월 개교와 동시에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으며 소통을 위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참여를 위해 교육과정 및 수업에 학생들의 활동을 녹여 내고 있다. 특히,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 학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업방식이 제공되는 배움 중심 수업, 각종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치 활동 강화 지원 등은 흥덕고의 손꼽히는 4대 혁신 교육프로그램이다. 박영송 위원장은 “우리 시가 유입 인구의 증가세에 맞물려 학교수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혁신학교 모델을 고민하다가 금번 현장방문을 계획하게 되었다” 며 “이를 계기로 세종형 혁신학교가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양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시로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하자 없는 이관 추진

###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찬영)는 제29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6월 3일 오전 9시에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운영계획을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안찬영 위원장과 정준이 부위원장 등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준공되어 세종시에 이관될 예정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시를 선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 이관을 위해 활동한다.

안찬영 위원장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은 총 108개소로, 올해는 호수공원, 시청사, 행복아파트 등 15개소이며, 내년에는 소방서, 광역복지지원센터, 대덕-테크노 연결도로 등 20개소가 이관될 예정이다” 며 “집행부와 함께 공공시설물을 완벽히 인수해 공공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올해 4월 10일

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위원 구성은 안찬영 의원, 윤희권 의원, 정준이 의원, 장승업 의원, 김복렬 의원, 김정봉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 1-3 종촌동 복컴, 세종호수공원 등 5개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찬영, 이하 인수점검 특위)는 6월 10일 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특위 의원, 시청 및 행복청, LH 담당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점검 특위 위원들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세종호수공원, 폐기물 연료화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1-3 생활권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종촌동 복컴), 제천·방축천 등 시 인수 공공시설물 5개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시설물에 대한 인수점검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복렬 의원은 “종촌동 복컴의 도서열람실이 전반적으로 어둡다”며 “전체조명기구 중 LED 조명의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정봉 의원은 “세종호수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나무그늘이 없는 등 시민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파고라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고 지적했다.

윤희권 의원은 “세종호수공원에서 폴리염화알루미늄을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면 금강으로 유입되어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문가로부터 수질환경과 수질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승업 의원은 “세종호수공원의 나무식재와 관련하여 토질을 확인하여 식재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생착에 좋은 수종으로 식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준이 의원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하나의 관로로 운영되고 있어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추후 타 생활권에 설계되는 집하장 시설은 2개의 관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찬영 위원장은 “종촌동 복컴의 외부 계단 높낮이가 일정치 않고, 마감선이 안맞는 부분이 존재하는 등 계단 시공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시공을 주문했다. 더불어 안찬영 위원장과 윤희권 의원은 체육관 바닥재를 장판으로 설계변경한 사유를 물으면서 “습기가 많은 지하에 체육관이 배치되어 계속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며 “당초에 체육관 공간에 대한 재배치가 검토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1-3생활권 종촌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집중점검

##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찬영, 이하 인수점검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은 6월 12일 오후 3시 1-3생활권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종촌동 복컴)를 방문해 하자 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날 위원들은 종촌동 복컴 출입구부터 계단 등 외부시설부터 문화의 집, 체육관 등 내부시설을 둘러보면서 “2층 주현관 앞 보

도블력이 역구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이 건물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외부계단의 높낮이가 달라 보행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내부시설을 점검하면서 “계단 난간대가 확실히 고정되어 있지 않아 많이 흔들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4층에 위치한 문화의 집 내부 바닥재가 많이 들떠 있는 등 바닥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고 말했다.

특히, 안찬영 위원장은 “지하에 위치한 체육관은 바닥에서 2m 정도가 지하수위” 라며 “바닥 터파기 공사에서 확인이 되었으



면 내부와 외부 모두 방수공사를 했어야 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지하에 있는 펌핑시설을 직접 확인하면서 “지금도 계속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습기가 많은 체육관 바닥은 마루로 설치했어야 했다” 고 주장했다.

차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했다.

서금택 대표를 비롯한 박영송·이태환 의원, 시민 및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과 관련부서 담당과장, 이홍준 의회운영전문위원, 그리고 세종시 의회 직원 등은 이날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방문하여 강원연탄공장에 임대해 준 철도부지(완충녹지)가 불법 점용된 것에 대한 원상복구 협의와 주민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으며, 경동개발을 방문해서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갈등 해소사례 등을 파악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1일 방문에 이어서 두 번째 현장방문으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금택 대표는 “그동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면, 앞으로는 조치원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5만여 조치원읍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집행부에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줄 것을 제안할 예정” 이며, “앞으로 주민들과 업체간 상시 대화채널을 가동하는 등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친환경 연탄공장 제2차 현장방문**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현장방문**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 회원은 6월 11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친환경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 음성연탄 공장을 찾아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제2



##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

### 임상전 의장, 세종시 보훈단체와 간담회 가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6월 19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상이군경회 세종시지회 등 8개의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보훈단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임상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가를 위해 뜨거운 청춘을 조국에 바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시는 보훈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 “시의회에서도 보훈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정부와 국회에 18만 세종시민의 염원 담은 건의문 제출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임상전 의장, 세종세무서 신설에 발벗고 나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에서는 6월 22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세종세무서’ 조기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

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현재 세종시 출범 이후 불과 3년 만에 인구가 두 배 증가한 18만 명으로 연말이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도로·교통 및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전벽해의 도시이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 22km~70km 거리의 인근 공주세무서를 이용해야하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세종세무서’ 조기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임상전 의장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그 위상을 날로 더해 가고 있고, 국세청마저 세종시에 이주해 있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로서 유일하게 세무서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고 강조하면서, “세종 세무서가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가 일심동체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민간단체에서는 오는 6월말 국회, 총리실 및 관계부처에 18만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은 주민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으로 ‘세종세무서’ 조기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시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의료사각지대 해소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

### 임상전 의장, 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6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며 공단 업무에 대한 이해와 민원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건강보험의 주요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상전 의장은 공단 관계자로부터 공단의 역할과 기능,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는 포괄 간호서비스 제도를 포함한 보장성 확대방안 등 지역주민들에게 기여하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임상전 의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건강보험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세종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사업의 현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일일 체험 소감을 밝혔다.



지역언론과 상생하며 민심을 살피는  
생활자치의 계기로 삼을 터

**임상전 의장,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의정대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전국지역신문협회(이하 전신협)로부터 광역의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6월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신협 및 수상자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전신협은 임상전 의장이 지난 충남도 의원 시절, 세종시건설특별법 국회통과 투쟁 등 세종시 건설과 의장으로 재임하면서 세종시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노력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임상전 의장은 “이 상은 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의회 전체에게 주는 상이며, 지역언론과 함께 상생하며 민심을 살피는 생활자치의 길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신협에서 수여하는 이 시상식은 창립 제12주년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의 일환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등 지역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공을 세운 유공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여하고 있는 전국단위 행사이다.



## Question & Answer

# 긴급현안 질문



윤형권  
·  
의원

### 제2국립의료원 유치와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각 생활권의 학교 신설 시 수영장 설치계획 (제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Q** 우리시는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으며, 2018년에 충남대학교병원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인구 70만명의 규모에 비해 치료시설 부족이 예상됨. 제2국립의료원 유치를 통해 부족한 의료시설을 보완해야 하는데, 의견은?

**A 시장** ▶ 세종시 인구 목표를 고려해 볼 때, 추가적으로 의료시설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가차원에서 제2국립의료기관 설립을 결정하여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음. 다만,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서울 서초구 원지동으로 600병상 이상 규모로 이전 준비 중이고, 지난해 국가재정결산규모가 12조원이었던 상황에서 제2국립의료원 유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의료시설 지속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Q** 우리시는 가까운 충북 오송에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가 있고, 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어진동에 있으며, 4생활권에 의료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국립의료원 등의 국가차원의 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계획은?

**A 시장** ▶ 어진동의 보건복지부, 오송의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가 위치해 있는 세종시의 특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세종시 건설지역내 토지공급계획 승인기관인 행복청과 토지소유기관인 LH와 협의, 국가차원의 의료기관 유치를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Q** 우리시는 인구 19만명에 달하는데도 2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이 없어 MRI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 등 시민의 건강증진 기회가 적은데, 정부(보건복지부)에 규제완화 차원에서라도 시민의 건강을 확보할 MRI 장비 설치 기준에 대한 개선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시장** ▶ MRI 장비 설치 기준은 200병상 이상 규모

의 병원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꼭 2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아니라도 공동활용병상\* 200병상 이상에서 설치가 가능함. 세종시 내 병원에서 MRI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공동활용병상 200병상을 확보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및 방사선과 1명의 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 요청하면 설치가 가능함. 다만, MRI 장비 설치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필요하면 규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음.

\*인근 병원이 특수의료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병원의 총 병상 수

**Q** 세종시 설치법에 따라 독립기구로 출범한 감사위원회가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교육청 내에 별도로 감사관실을 두고, 3급 상당의 감사관을 최근 선발했는데, 이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시장** ▶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 품질을 제고해 나가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피감기관(교육청)의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특별법에서 교육·학예 분야까지 감사범위 및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킨 취지를 고려할 때, 피감기관인 교육청의 자체적인 감사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사관의 직급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Q** 교육감은 감사위원회에 위원 2명을 추천하여 감사위원회에 참여하였으나, 최근 감사관을 별도로 채

용하고 감사관실을 강화하고 있음. 이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교육감** ▶ 감사관을 새로 채용한 이유는 전임 감사관이 개인 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결원 예상 직급과 동일한 3급으로 채용한 것이지, 감사관실을 강화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는 아님.

**Q** 감사관실을 두는 대신 감사위원회에 교육감사과를 두면 교육자치 훼손 또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라는 견해인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A** **교육감** ▶ 감사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사과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교육감사과의 설치가 교육청 자체감사기구의 폐지를 의미한다면 수용할 수 없음. 그 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청에는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두어야 하기 때문임.

**Q** 감사관을 3급으로 채용하였는데, 이는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정원을 책정해야 하는 대통령령과 배치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교육감**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는 감사기구의 장 직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의 2에는 시·도 교육청에서 4급 이상 정원을 책정할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12년 6월 12일자로 교육부의 3급 단수직급으로 감사관의 정원 책정 승인을 받아 자치법 규에 명시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배치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됨.

**Q** 각 생활권의 학교를 신설하면서 수영장시설 계획은 있는가?

**A** **교육감** ▶ 세종시 생활권에 신설하는 학교의 예산은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교육부에서 학교신설비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교부기준에는 다목적강당, 도서관, 특별교실, 급식실, 화장실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영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학교에 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자체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나,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 여건과 추가 부지 확보 문제로 곤란한 실정임.

**Q** 우리시에는 수영장이 3곳(명동초, 한솔중, 아름동 스포츠센터)뿐임. 이중 학생들의 의무 수영강습(초등 3학년)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솔중, 명동초 수영장뿐임. 세월호 참사 후 학생들의 수영 강습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는데, 3생활권에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은?

**A** **교육감** ▶ 2015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수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한솔수영장을 최대한 활용하면 가능함. 앞으로, 학생 수영교육 및 특기적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3생활권에 수영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복청, 시청, LH 등 관계기관을 주축으로 적극 노력하겠음.

## 공공시설물 인수, 미래부의 세종시 입지, 주차장 면적 강화 (제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Q** 2015~2016년도 공공시설물 이관 대상과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수현황은?

**A** **행정부시장** ▶ '30년까지 이관대상 시설물은 총 108개로서, '14년까지 복컴(4개), 광역도로(3개), 은하수공원 등 18개 시설물을 이관받아 운영 중이며, '15년에는 15개, 16년에는 20개의 시설물을 이관받을 예정임. 12년~'15년 6월말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각각 12개씩 총 24개의 시설물을 인수하여 운영 중임.

**Q** 공공시설물 인수 후 하자보수 및 리모델링 현황과 비용은?

**A** **행정부시장** ▶ 인수된 24개 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인수 후 총 187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인수받은 시설물은 대부분 하자보수기간 내로서, 이 중 159건(89%)은 조치 완료되었고, 28건(15%)은 시공업체 부담으로 조치 중임. 또한, 공공시설물 인수 후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설은 복컴내 도서관, 보육시설,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이며, 전기·통신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에 각각 약 1~3억원의 비용이 소요됨.

**Q** 행복청, LH와 시가 체결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협약서의 협약내용 중에 'LH는 인수 전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돼 있지만, 행복청은 이행각서 제출없이 인수인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이 불합리하고 부당하지 않는가?

**A 행정부시장** ▶ 원활한 공공시설물 이관을 위해 '13.8월 행복청, LH와 세종시 간'공공시설 이관을 위한 관계기관 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설물 이관을 추진 중이며, 공공시설물 이관합의서는 행특법 또는 국토계획법상의 무상양여 및 귀속 등의 절차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서 준공 후 1년간 LH의 한시적 관리 등은 우리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임. 앞으로 사업계획단계부터 우리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여 참여방안을 포함, 한시적 관리대상 시설물 확대 등 합의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또한, 이관합의서에 명시된 이관절차 중 LH 시설물은 준공 전 '하자보수완료보고서 또는 완료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고, 행복청 시설물은 준공전 '지적사항 검토·반영'으로 명시되는 등 차이가 있으며, 이는 무상귀속(LH)과 무상양여(행복청)의 법적 성질이 다르고, 기관간 입장 등을 고려한 표현상의 차이로써 실제로는 행복청에서도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를 진행 중임.

**Q** 아름동스포츠센터의 개장이 1년간 늦은 이유, 첫마을 폐기물연료화시설 등의 인수인계 지연, 호수공원 인수인계 지연 등의 이유와 대책은?

**A 행정부시장** ▶ 아름동스포츠센터는 행정절차와 리모델링 등으로 개장이 늦어졌으며, 폐기물연료화시설은 현재 시설내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LH와 협의 중으로 동 시설의 설치 후 인수받을 계획임. 또한, 호수공원은 '14.6월에 준공하여 '15.6월에 우리시에 인수되었으며, 협약에 따라 준공 후 1년 동안 LH에서 관리한 것으로 인수가 지연된 것이 아님.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우리시의 적극적인 참여, 합동점검단 전문성 강화, 사전 운영계획 수립을 통

한 시설물 운영공백 방지 등이 필요하며, 공공시설물인수 점검특위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음.

**Q** 종촌동 복검의 경우 당초 설계에는 체육관이 마루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가 지하수위가 높아서 마루를 깔지 못하고 장판을 깔았는데, 이 상태로 인수하면 마루를 깔아야 하는 등 시의 추가 재정부담이 우려된다. 인수의향은?

**A 행정부시장** ▶ 종촌동 복검은 설계 및 지질조사 과정에서 지하수가 발견되어 건물하부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지하수를 배수시키는 공법을 사용한 것임. 또한, 행복청은 지하수의 영향으로 지하 체육관의 습도가 높은 것을 고려하여 습기에 약하고 교체비용이 큰 나무바닥재 대신 체육관 전용 바닥재로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현재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여부 등을 행복청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인수여부 및 시기 등을 결정하고자 함.

**Q**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입지는 법에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행정부시장** ▶ '행복도시법' 제16조 제1항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6개부(외교·통일·법무·국방·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미래부는 현행법상 세종시에 입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의 이행만이 남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Q&A

Question & Answer

## 긴급현안 질문

**Q** 최근 언론보도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에 자리 잡을 것이라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행정부시장** ▶ 최근 과천 지역 국회의원(송호창)을 통해 불거진 '미래부 과천 잔류' 확정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과천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무실을 이전(4동→5동)한 것일 뿐 과천으로의 입지가 확정된 것은 아님. 앞으로, 우리시는 미래부·해수부·인사처·안전처 등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처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 고시를 요구하겠음.

**Q** 시민대책위라도 구성해서 미래부의 세종시 입지를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행정부시장** ▶ 최근 시민단체(참여연대 등)의 성명서 발표 등과도 취지를 같이 하고 있으며, 법률의 범위안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겠음.

**Q** 신도심 주차장난이 심각한데, 그 원인은?

**A 행정부시장** ▶ 과소공급된 주차용지, 일시적인 과다 수요, 제도적 문제로 파악됨.

**Q** 구도심의 원룸주택의 난립이 주차장 면적기준이 약해서인가?

**A 행정부시장** ▶ 현재 우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는 0.6대이며, 대전, 부산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우리시 기준은 완화된 것으로, 원룸주택 주차

장 면적을 강화하면 원가상승에 영향을 미쳐 원룸주택의 건설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차장 면적 강화가 원룸주택 난립의 주된 원인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Q** 주차장 면적기준 강화로 분양가 상승, 임대료, 물가 인상이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의견은?

**A 행정부시장** ▶ 분양가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업용지 공급방식에 기인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을 보면, 상업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고가 낙찰가격에 공급되고 있어 과열경쟁 현상이 발생되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주차장 면적기준을 강화하면,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하기 보다는 토지분양 낙찰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됨.



## 등곡 가축분뇨처리장 및 가축 분뇨처리, 시설현대화, 유용미생물 보급대책 관련 (제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Q** 등곡 가축분뇨처리장 설치 목적과 시설비 내역 및 운영현황은?

**A 행정부시장** ▶ 설치목적은 등곡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최적의 처리공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금강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처리장은 총 170억 7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하였음. 현재 두현이앤씨&부강테크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운영 중임.

**Q** 등곡처리장 운영을 통한 수질 개선 효과는?

**A 행정부시장** ▶ 등곡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방류수 처리효율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이 30PPM인데 반해, 처리수질은 4.3PPM으로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어 수질개선 효과가 있음.

**Q** 지난 5월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중, 등곡 1리 및 3리의 5.22.~5.23.새벽 4~6시, 5.29.~5.30. 저녁 7~9시 수질 검사결과는?

**A 행정부시장** ▶ 축산단지가 위치한 조은천의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간대에 결과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음. 주 오염원은 축산농가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축산폐수 하천 유입 및 불법방류로 추정되며, 앞으로 수질오염 근절을 위한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엄중 대응할 계획임.

**Q** 등곡천이 금강으로 흘러드는데 금강물 중 1일 5,000톤이 호수공원으로 유입되는데, 이로 인한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가능성은 없는지?

**A 행정부시장** ▶ 현재 호수공원의 용수는 양화양수장에서 취수된 금강물(5,000톤/일)을 호수공원 내 처

리시설로 유입, 정화처리한 후 담수하고 있어 오염물질로 인한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현상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함.

**Q** 등곡 처리장 운영 이후 등곡 소하천 수질개선의 효과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처리장 폐쇄 혹은 시설보완을 통해 공동자원화 시설로 전환할 의향은 있는지?

**A 행정부시장** ▶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유입수질('15.6월 평균)은 BOD 17,396PPM이며, 방류수 수질은 BOD 4.3PPM으로 만족스럽게 처리되고 있으며, 정상 가동 중임.

**Q** 위 두가지 방안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처리장은 그대로 활용하되 신규로 공동 고액분리와 공동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여 악취 저감 및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행정부시장** ▶ 신규로 고액분리기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농가별로 사용 중인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악취 저감 및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Q** 점차적 축산농가 폐업보상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A 행정부시장** ▶ 폐업보상 등을 통해 폐업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예산의 한계 등으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 TF팀(산림축산과)을 통한 개선방안이 나오는데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세부 추진계획

을 마련해 나가겠음.

**Q** 현재 양돈 양계 농가의 분뇨 처리방법은?

**A 행정부시장** ▶ 양돈농가의 경우, 고액분리기를 이용하여 분과 뇨를 분리한 후, 분(糞)은 위탁 처리업체에서 퇴비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뇨(尿)는 공공처리장으로 배출하여 처리하고 있음. 양계농가의 경우, 발생한 계분을 2~3일 간격으로 계분 벨트를 통하여 차량에 수집한 후, 충광농원 내에 위치한 위탁관리업체(동신계분)에 보내서 처리하고 있음.

**Q** 축사, 축산 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지원을 위한 우리 시의 구상은?

**A 행정부시장**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존에 축산업(기 축산업허가)을 영위하는 농가에 지원되며, 신규 축사 신축 시는 지원이 불가함. 충광농원 축산농가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신청할 경우,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Q**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한 축산농가의 의지 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A 행정부시장** ▶ 현재 충광농원의 악취 개선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마을공동체만들기 워크숍 실시(3회), 냄새 저감을 위한 주민협의회 개최(2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앞으로 세종시 클린축산 구현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발전적인 대책을 협의해 나가고,

마을협의회 등을 통한 지속적 농가교육을 실시하여 대청소 등 자정노력 의지를 제고하겠음. 또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냄새 저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점검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적발시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임.

**Q** 7월 중 연동면 농기계 임대창고 부지 내에 유용미생물 생산공장을 준공 무상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농가에 적극적인 보급대책은?

**A 행정부시장** ▶ 현재(7.15) 건축물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배양시설 공사가 금주에 완료할 예정으로 시범배양기간을 거쳐 7월 27일부터 정상 공급할 예정임.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는 고초균은 전량을 충광농원에 공급할 예정으로 농가별로 공급량(인수량), 사용량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필요시 관내 양돈 및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악취저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Question & Answer

#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윤형권  
의원

## 건강한 도시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설치

**Q** WHO(세계보건기구)는 시민들이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건강도시'라고 규정하고 있어 세종시장도 세종시를 건강도시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음.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는 체육·여가·레크리에이션 등의 신체활동, 의료서비스와 생활환경 개선, 정신적

인 스트레스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방안은 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가능함. 4월 현재 세종시 인구는 18만명에 이르지만, 아직도 종합운동장과 축구장은 물론, 수영장·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태부족함. 교육청과 협력해서 시민들이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교육청이 신설학교에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시장** ▶ 우리시의 주민 1인당 체육시설 평균면적\*은 1.96㎡로, 전국 평균인 2.69㎡에 비해 27%가량 적은 실정임. 관내 생활체육시설의 추가확충 및 이미 계획된 시설의 내실 있는 건립을 위해 국토부·행복청 등 유관 sf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읍면지역은 물론, 신도시지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음.

신도시지역에는 한누리대교 인근 금강 하천부지를 활용한 스포츠클럽 조성은 적극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2-1생활권(다정동 5-5) 저류지에 축구장, 야구장, 게이트볼장 등이 포함된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이용도가 떨어지는 기존 체육시설의 종목 간 조정을 통하여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3-1생활권(대평동)에 계획된 종합운동장이 중앙정부 주도로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겠음. 또한, 일반개방이 합의된 LH 세종본부 내 직장체육시설(풋살장)의 주민이용도 촉진해 나가겠음. 읍면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열악한 부강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연동면 예양리 지역의 미호천 하천부지를 활용한 스포츠 공원 조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교육청과 협조하여 수해주민의 규모,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서 필요시 조명시설 설치,

# Q&A

Question & Answer

시정 질문

운동장 규모 확대, 체육시설 확충 등도 검토해 나가겠음.



장승업  
의원

## 세종시 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Q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세종시립 의료기관은 2013년 7월 1일 개원 후, 월평균 진료인원이 2013년 943명, 2014년 1,13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며, 공공보건 의료사업으로 저소득층 비급여진료비 감면, 시민 건강강좌 및 건강칼럼 연재, 해외여행 질병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초기에 응급진료는 물론, 서울대 본원과의 2차 진료연계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혜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음. 민선2기에 들어서 시민들로부터 기대와 신뢰를 받고 있는 세종시립의료기관을 전문요양시설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현재 시립의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더 발전시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 따라서, 응급실 중단에 따른 응급환자 발생시 대책은 무엇이며, 시립의료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노인치매센터로의 변경 후에도 서울대병원과의 진료연계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지? 또한, 시립의료기관의 존치여부 및 노인치매센터로의 전환계획은 무엇이며,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과 주민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시장 ▶ 세종시립의원은 그간 휴일 및 공휴일에는, 서울대병원 의료진 파견이 어려워 평일만 응급실을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가 일평균 3명으로 효율성이 크게 낮아, 부득이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으나, 관내 민간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 대체 응급실 기능을 확보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처해 나가겠음. 이를 위해 국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음.

▶ 그간 입원실, 수술실 등이 없는 의원급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응급실 이용환자가 일평균 3명에 불과, 금년 2월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는 세종시립의원 2층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과 같이 서울대병원의 진료연계 서비스를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 세종시립의원의 공공성, 효율성, 효과성을 고려하여, 민간영역에서 접근이 어려운 치매환자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 기능을 추가 할 계획으로 지금처럼 진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세종시립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서울대병원측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립의원 2층 일부를 리모델링, 내년 1월에 업무개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예방, 검진,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치매환자 관리를 통해, 치매 진행속도를 늦춰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3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수는 178,000명으로, 인구 증가세가 뚜렷한 실정이나, 종합병원 및 MRI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임. 최근 충남대병원에서 건설지역에 500병상 규모로 MRI를 포함한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종합병원급의 충남대병원 세종시 분원 설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앞

으로, 충남대병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시민들이 첨단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치 기준에 부합되는 관내 의료기관에 MRI 등 첨단의료 장비를 구축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음.



정준이  
의 원

### 신도심과 구도심의 문화 불균형 해소

**Q** 2016년에 설립예정인 문화재단 추진 현황과 지역 문화진흥기금 자원 대책은?

**Q** 세종시 신도시 지역의 인구 급증과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의 문화적 격차는 이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신도심은 부족한 문화향유의 기회에 대해 불만이고, 구도심은 신도심에 집중된 문화행사로 인해 문화소외지역으로 되어가는 것에 대해 각각 불만임. 문화 격차 해소에 대한 대책은?

**Q** 문화예술동호회는 지역문화예술의 기반이자 직접적 향유자가 되는 부분으로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문화시설인프라를 설치하고, 문화예술동호회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을 선도해 줄 지역내 전문예술인들의 역량을 배가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시장** ▶ 문화재단은 201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타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벤치마킹 등을 거쳐 금년 4월중 재단설립 기본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6월까지 의원간담회,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올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제정과 문화재단 조직 구성(안) 마련, 정관 제정 및 창립총회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화재단의 자립을 위해 총 300억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목표로, 현재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 다만, 기금조성의 정확한 규모와 시기는 문화재단의 기능 및 저금리 기초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음.

▶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인구구성과 지역특색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남부지역은 아트센터, 박물관단지, 대통령기록관 등 국책사업을 활용한 문화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길거리공연, 야외상설공연 등을 통해 세종호수공원을 야외문화행사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음. 북부지역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등을 통해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도모하겠음.

▶ 우선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동호회가 자발적으로 생성·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읍면동사무소 등을 동호회 교육 및 연습공간으로 제공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 동호회의 정기회원전 또는 정기공연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중앙 문예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모신청 대비 지원율\*(2015년 40%)을 높여 나가겠음.

# Q&A

Question & Answer

시정 질문



이경대  
의 원

## 시청 이전으로 학생 등하교에 따른 대중교통 대책

**Q** 신도시 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두 지역간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 현재 세종시 대중교통운행을 보면 지선과 간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나, 간선급행버스인 BRT 991번 버스는 세종터미널에서 조치원 홍익대까지만 운행되고 있으며, 간선 시내버스인 801번 노선은 조치원에서 전동면을 거쳐 전의면까지만 운행되고 소정면 지역은 지선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더구나 금년도에 세종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전의면에서 세종청사까지는 약 35km, 소정면에서 세종청사까지는 42km로 현재보다 두배이상 멀어지게 되어 전의면과 소정면에서 시청 또는 신도시로 가는 민원인과 통학하는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등 불편을 겪을 것임. BRT 991번 버스를 전동, 전의, 소정면까지 연장운행하고, 801번 시내버스 운행 구간을 소정면까지 연장하는 등 북부지역의 대중교통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건설도시국장시장** ▶ 시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간 연계와 학생통학을 위한 버스노선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버스 확대운행에 따른 운송적자와 버스차고지 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



서금택  
의 원

## 아름다운 선진 음식문화 개선방안

**Q**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2/3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의 관광객과 많은 식도락가들이 세종시를 방문할 것을 예상됨.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음식점 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 등 아름다운 선진음식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따라서 아름다운 선진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선진음식문화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신속한 제정 ▲전 직원 위생모자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연 2회 친절 서비스 교육 실시 ▲세종시 관광명소 사진액자 보급 ▲모든 업소 간판정비 및 영업 종료 후 음식점 주변청소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행정부시장** ▶ 현재, 음식문화 개선 지원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13. 2. 20.)를 시행중에 있으며, 세계적인 명품 도시 조성에 걸맞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확대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도 추진하겠음.

▶ 관내 음식점을 통해 우리시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보며,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방안

을 검토해 보겠으며, 청결복장에 대한 사항 중 위생모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조리종사자는 착용하여야 함. 다만, 일부 종사자가 번거로움을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입마개는 법에서 정한 강제사항은 아니나 '15년 1월 주요업무실천계획 보고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외식업지부와 협의하여 모범음식점 82개소에 대하여 착용토록 하였으며, 이후 자율적으로 착용을 확대하였음.

▶ 간판정비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선행되는 지역부터 시행하고, 조치원중심가(조치원로, 새내로)의 경우 전선지중화 및 보행환경개선과 연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 추진할 계획이며, 음식점 주변 청소 및 친절교육에 관한 사항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 위생교육 시 친절교육 과목을 신설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12년 이후 매년 60개소에 대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1:1 친절 맞춤형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 주변을 매일 청소하여 깨끗한 음식거리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시행하겠음.



이충열  
의원

### 세종시민의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기록관 건립 및 조례 제정

**Q** 세종시는 신행정수도 위헌판결과 수정안 추진 등 정권 다툼으로 희생되었다가 주민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지켜온 아픔의 산물로서, 현재 세종시는 세계적인 명

품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원주민들과 이주민들과의 갈등, 구도시 및 농촌마을과 신도시와의 대립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세종시민이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했던 기록을 전시할 기록관이야말로 향후 원주민들과 이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세종시민 투쟁기록관의 건립과 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시장** ▶ 우리시의 탄생과 출범과정, 건설과정 등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역사 기록물 등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일은 우리시가 하여야 할 일임. 기록관 건립은 우선, 공공·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사진, 기록물 등을 조사·수집·평가하여 신청사 이전시 기록물 전시 공간을 검토해 보겠으며, 관련 조례의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음.



김정봉  
의원

### 충광농원의 악취 저감을 위해 생균제 확대 보급해야

**Q** 민선 2기 12대 시정목표 중 10번째로 자연이 숨쉬는 도시환경을 위하여 그 첫 번째 실천과제로 충광

# Q & A

Question & Answer

## 시정 질문

농원 약취개선 사업비로 4년 동안 12억 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20차례 이상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14년에 부강면 인구 6,700여명 중에 969명이 전출을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약취저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4년 동안 12억여원을 가지고 과연 약취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우며, 우리시 총광농원 미생물 보급 현황을 보면 전체 축산농가 25명 중 단 1명만이 생균제를 주기적으로 보급받아 활용을 했는데, 사료, 축산, 분뇨처리 3단계에서 미생물을 사용하여 약취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생균제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경제산업국장** ▶ 축산단지에는 태생적으로 약취가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2013년부터 축사약취 해소T/F팀을 구성, 주민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마을공동체 만들기 워크숍(3회),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고, 약취 저감을 위해 2014년부터 축사내부에 미생물제(EM균)를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광농원 외부에 약취탈취제 살포(냄새저감단), 액비순환시스템 설치, 축사내부 미생물제(EM균)를 추가로 확대 투여하고, 분기별 대청소 등을 실시할 계획임.



김복렬  
의원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Q** 마을공동체는 읍·면·동 단위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주민 조직으로서, 과거 공동체는 새마을운동 같은 '잘살아보기'위한 관 주도의 획일적 모델이었지만, 현재는 지역 주민행복 등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 발전의 추진동력으로서 민간협력 모델로 바뀌어 가고 있음. 이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세종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상황은?

**A 시장** ▶ 마을공동체사업은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인 이상의 자발적인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는 '15년 3월 현재 총 14개소가 운영 중임.

▶ 당초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기존에 활동 중인 지원기관들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거나,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 등 현재 업무가 과중하고 또한, 공동체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단체나 법인 등의 추가 발굴·육성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선적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하여 단계적 공동체육성계획 수립, 신규모델 발굴,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육성된 소규모 공동체들의 자립방안으로는 우선 마을활동가, 공무원 등 마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워크숍, 사례탐방 등 참여형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으며, 농촌과 신도시의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 모델 발굴과 운영 방식에도 차별화를 도모할 계획임.

## 신도시 과대 학교 문제와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Q** 세종시는 매년 수십개의 개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 개교 예정인 학교 중 50학급이상 과대학급으로 개교 예정인 학교가 있는가?

**Q** 적정규모학교는 교육감님의 공약 중 하나인 것으로, 현재 개교된 과대학교는 수요예측 등의 실패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과 후년에 개교될 학교가 과대학교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안타까움. 과대학교 학생수요파악 실패원인, 수요파악을 했다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부지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

**Q**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은?

**A** **교육감** ▶ 2016~2017년 개교 예정 학교는 총 29교(유11, 초8, 중6, 고3, 특목1)로 특수학급 2학급을 포함한 50학급 이상 예상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6개교임. 이는 각 학교 통학구역(예정) 내 공동주택에서 유발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특수학급 2학급을 포함한 완성학급 50학급 규모로 설립을 추진 중으로, 추후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전입학생 추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학생수 유입에 따른 실제 학급편성을 해 나가겠음.

▶ 현재 2013~2015년까지 신설한 학교 중 50학급 이상 과대학교는 아람동에 위치한 아람초등학교(51학급, 1,266명) 1교임. 최초 2010.9월 행복청에서 아람초를 24학급 규모로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매입 및 설계완료 후 개교하였으나, 자체 학생수를 2회 조사한 결과(2012.12월, 2013.5월) 추가 학생 발생이 예측되어 42학급까지 증축을 완료하였음. 이후, 대우푸르지오와 중흥S클래스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금년 1~2월에 파악하였던 학생수 예측보다 훨씬 더 많은 전입학생이 발생하여 현재 51학급 규모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재 신설을 위한 추가 부지선정을 위해 LH와 협의 중에



이태환 · 의원

있으며, 교육부 중투심사 등 신설분리 가능성 검토, 교실증축, 공동학구 등 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2014년 10월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4.11월 개념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였고 2015.2.24 최종보고회까지 마쳤음. 현재는 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취지에 걸맞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준비 중이며, 정책연구 진행과정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이전비 지급



김원식 · 의원

**Q** 본청 및 직속기관 공무원, 일선학교 교사에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본청, 조치원읍, 한솔동 3곳, 47명에 대해 지급한 이전비가 3천6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 이전비 지출액이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과다하지 않은지?

**Q** 공무원여비규정 제19조(이전비의 지급대상) 제2항에 의거 기 지급한 이전비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지 또한 이전비 지급이 적절한 것인지?

**Q** 이전비를 일부만 지원하거나 다른 사업 예산으로 대체 편성할 의향은 있는지?

**A** **교육감** ▶ 이전비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교육청의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전비 지출이 과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공무원여비규정 제19조 제1항에서 신입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급기관 및 학교에서는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소요액을 편성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음.

▶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세종시로 전입하였으나 경제사정, 자녀교육, 배우자직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소속기관 또는 학교장이 확인하여 적정하게 지급되었음.

▶ 타 시·도 전입공무원에 대한 이전비 지원은 그동안 단위학교 “학교운영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각급학교별 이전 기관 공무원 배우자 등 전입자의 과다로 “학교운영비” 범위내에서 지원이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전입공무원 이전실태 등을 조사하고, 예산실정을 고려하여 전입공무원에 대한 이전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

# 5분 자유발언



5 Minutes Speech

## 세중시의 효율적인 물 관리 방안 마련 촉구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물은 석유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산이며, 국민의 재산인 동시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기도 합니다.
- 최근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케냐 등과 함께 물부족 국가로 지정되었는데, 세계적인 명품도시이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마을 공동우물과 용천수에 대한 활용 ▲국비 확보를 통한 소류지나 사방댐 확충 ▲비상급수시설 확보 ▲안내 판 및 주변정비를 통한 조치원의 젓줄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조천발원지 조성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제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현재 강원연탄공장측은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6월 10일에는 시장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한 완충녹지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조치원읍 주민들은 강원연탄공장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 관련부서에서는 강원연탄공장에 대한 행정계도 등을 통해 저탄장 덮개처리 등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도 저탄장내에 많은 양의 저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 시는 분야별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과 업체간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 도심 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장현장에 상시 배치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 **서금택** · 의원



## 세종세무서 조기 건립 촉구

(제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우리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지난 2012년 9월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까지 3년에 걸쳐 총 50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되었으며, 세종시 인구도 출범 당시 10만 1천명에서 지난 3월말 현재 18만여명을 상회하였고, 올 연말에는 20만명에 이르러, 향후 2030년까지 예정지역 내 50만명의 인구 목표도 계획대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예정지역 내 공동주택의 부동산 거래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지만, 시민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먼 거리에 위치한 공주세무서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인구가 약 11만 5천명인 공주시는 현재 18만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보다도 작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주세무서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관할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위상에 걸맞지 않습니다.
- 세종시는 2020년까지 매년 평균 약 15,000세대에 약 3만여명 이상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급증하는 세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019년 준공예정인 세종세무서를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 **고준일** · 의원



## 명품 세종호수공원을 위한 제언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올해 6월부터 세종시민의 쉼터인 세종호수공원의 운영·관리권이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어 집행부에서는 세종호수공원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외관상 관리편의 위주가 아닌 이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청주의 문암생태공원이나 대전의 대청호 잔디공원처럼 넓은 잔디에 돛자리나 간단한 그늘막 텐트에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일정구간 먹거리를 허용하는 등 공원조성과 관리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주요 공원 및 관광지, 정부청사, 강과 산, 출퇴근길 등과 연계하여 휴길 산책로를 조성하여 휴길이 주는 정감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종시민만의 특화된 도시풍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세종시 최대의 관광자원이자 가장 중요한 자원인 금강을 일정 위치의 집중적 개발보다는 금강변 전 구간의 전반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소요소에 금강변에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꾸는 등 금강 둔치의 이용 불편사항도 개선해야 합니다.

● **김정봉** · 의원



## 고령농, 여성농 및 소규모 농가를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도입 촉구 (제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우리시는 로컬푸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싱싱장터 4개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로컬푸드 생산자 연합회를 발족하였고, 오는 7월에는 도담동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려는 등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로컬푸드의 근간이 될 다품종 소량생산 기반인 고령농, 여성농 등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인 판로지원에 비해 너무 소극적이고 미약하여 소외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고령농, 여성농 및 소규모 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서비스가 전무하다보니, 이들 농가에서는 일일이 농작업 대행자를 찾아야하며, 그마저도 파종기 등 농번기에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영농 불편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도입해 로컬푸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 농가를 위한 적극적인 영농지원으로 휴업농지를 최소화하여 농지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는 물론, 농작업 서비스 수혜 농가 및 농작업 대행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고용창출 효과와 농촌 소득을 향상 시켜 안정적인 로컬푸드의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 정준이 · 의원



## 교육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이라는 말은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는 뜻으로 세종시의 미래는 교육에 있습니다.
- 지난 1년간 전체 세종시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조치원읍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조치원읍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학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세대들이 행복도시 건설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 교육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 현재 추진 중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교육과 관련된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고, 인근 충청남도의 경우 기획조정실 산하에 교육법무담당관을 두어 교육관련 정책개발, 교육협력관 파견제 운영 등 교육협력에 노력하고 있듯이 향후 시의 조직개편을 통해 세종시 교육 전반을 관장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 이태환 · 의원



## 조치원읍 침산2근린공원의 성공적인

### 조성 촉구

(제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1954년 최초 공원으로 고시된 이래 60년 동안 방치된 침산2근린공원에 대한 매입과 조성에 대한 발표는 장기간 재산권의 제한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과 제대로 된 공원을 향유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큰 반가움이었습니다.
- 시에서는 258,903㎡의 침산2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세종시민체육관 일대의 운동장 부지를 포함하여 총 361,000㎡에 해당하는 부지에 체육과 문화, 위락시설이 포함된 통합공원으로 조성하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역 준비 과정에서 ▲시민공모를 통해 ‘침산2근린공원’이라는 명칭 변경 ▲과도한 시설물 자제와 체육과 문화, 여가시설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 ▲문화시설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많이 하는 2~3백석의 소공연장 건립과 한국향토문화자료관 유치를 위한 공간 마련 ▲신흥4거리~시민체육관 구간의 도로확장예산 반영 ▲조치원의 중학교 신설 관련하여 적절한 학교의 위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박영송 · 의원



## 세종시 관내 중학생의 인접 시도 소재

###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방안 강구

(제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세종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종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전의·소정 지역과 편입지역인 장군·부강 지역의 학생들은 통학의 여건상 지역 내에 진학할 수 있는 상급학교가 충분하지 않아 인접한 타시·도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교육비전으로 하는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전의·소정 지역과 편입지역인 장군·부강 지역의 학생들을 세종시 고등학교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통학문제, 교통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경대 · 의원



#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제 28 회 임 시 회 주 요 처 리 안 건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8회 임시회에서는 고준일 의원이 ‘세종세무서 조기 건립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였다. 특히, 2일과 3일 양일간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올해 첫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하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차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 01 세종특별자치시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정준이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구간 중 중기주택구간(매매 6억~9억, 임대 3억~6억)을 신설하여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일부를 반영하고자 함.

### 0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이경대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융자금 총 한도액 명시 및 일부 조문의 용어정비와 융자조건 완화를 통한 수혜대상자 확대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03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이충열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

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과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자 함.

#### 04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 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제안자** 서금택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을  
기관 및 단체의 공익목적에 위한 활동에  
필요한 수송수단으로 지원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05 세종특별자치시 출연기관 운영 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한 사항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06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의 명칭  
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변경하고, 공공  
형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와 시설비 일  
부 지원을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하  
여 로컬푸드의 날을 로컬푸드 주간으로  
확대 지정하고, 그 밖에 외래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 07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제안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  
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설  
립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 및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그 밖의 처리 안건

### 조례안 4건

#### - 의원발의(3건) |

-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준일 의원](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  
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김원식 의원](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수정가결)

#### - 시장제출(1건)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 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 기타안건(4건) |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  
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  
리 및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제 29 회 임시회 주 요 처 리 안 건

5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9회 임시회에서는 서금택 의원, 김정봉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류임철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섬서성 우호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201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재단법인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그리고 '세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아름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 0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 교육감 제출

**주요내용** |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여건 평준화로 지역간 · 학교간 고교 서열화 방지와 고교상향평준화를 통한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0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 박영송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그 사회적가치를 확산하고, 사회구성원의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0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  
 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안찬영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  
 원 구성에 대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  
 여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  
 하고, 연구용역의 내실화로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04**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  
 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제안자** | 이경대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  
 행 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영하  
 여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  
 동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05**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  
 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시장 제출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높  
 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06**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시장 제출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의 창조경제  
 를 실현하고 확산하기 위하여「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세  
 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의 출연 등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07**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안자** | 시장 제출  
**주요내용** | 청소년의 참여, 소통, 체험 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  
 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위탁단체를 선  
 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사  
 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의거 심의  
 안을 제출.

## 그 밖의 처리 안건

**조례안 12건**

– 의원발의(2건) |

-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보  
 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  
 송 의원](원안가결)

– 시장제출(8건) |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등

– 교육감 제출(2건)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민감사관 구성  
 ·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기타안건(9건) |

-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  
 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원안가결)
- 세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등

#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제 30 회 임 시 회 주 요 처 리 안 건

6월 3일과 4일 양일간 열린 제30회 임시 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 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세종특별자 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한편,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찬 영 의원이 세종시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추진과 관련한 수돗물 공급협약' 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 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 김정봉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기 일수를 조정하여 회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정례회의 회기를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정함.

### 0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 시장 제출  
**주요내용** | 국정방향과 연계하여 재난의 효율적 대응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안전국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통보한 2015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제 3 1 회 정례회 주요 처리 안 건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31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31회 정례회에서는 이태환 의원, 박영송 의원, 이경대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의결하였다.

주요 처리 안건은 총 45건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세종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안', '세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 '세종시 건축기본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과 세종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9건이다.

한편,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희권 의원이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제2국립의료원 유치와 MRI 장비 설치',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생활권의 학교신설 시 수영장 시설계획'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으며,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희권 의원과 김정봉 의원이 각각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와 미래부의 세종시 입지, 주차장 면적 강화', '등곡 가족분뇨처리장 악취 및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 0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 김정봉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신·증축, 보수 등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주민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0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 김원식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감시활동 참여를 위한 환경오염신고·접수체계 구축 및 포상금 제도운영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03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 임상전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원 및 세종특별자치시와 군사분

개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응급구호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세종미래 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신뢰 받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0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윤형권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05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서금택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06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시장 제출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07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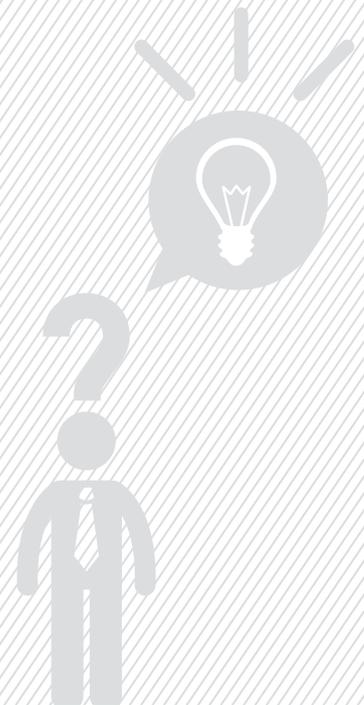
**|제 안 자|** 시장 제출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세 균등분은 장기간 조정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종전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지방세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이 정한 의무사항을 중복하여 정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8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교육감 제출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세종교육 미래 비전 및 중장기 정책

**09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교육감 제출  
**|주요내용|**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학생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의 및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에 대한 출연 및 기부금 등 재단 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 그 밖의 처리 안건

### 조례안 21건

#### - 의원발의(11건)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복렬 의원](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경대 의원](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열 의원](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형권 의원](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정봉 의원](원안가결)

#### - 시장 제출(10건) |

-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등

#### - 기타안건 (12건)

-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안(원안가결)
-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원안가결)
-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거쳐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장 지상주의로 인한 분배와 나눔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국민간의 갈등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밝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재화의 순환과 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두된 대안이다.

성장 일변도의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령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방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투입과 인력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법제정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고도성장과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야기된 뿌리 깊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사회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입장차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실현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사회적경제의 고용 및 복지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 and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5년 5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 세종세무서 설치하는 세종시민의 염원이며 금지입니다 –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되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도시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온갖 우여곡절을 딛고 마침내 2012년 7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로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역사적인 출범을 하였으며, 2012년 국무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의 1단계 이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37개의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불과 3년 만에 인구가 두배 증가한 18만 명으로 연말이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도로·교통 및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전벽해의 도시이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 세종시 인구 증가현황 : 10만명 (2012년) / 18만명(2015.5월) / 20만명(2015년말) ... 출범초기보다 두배 이상 증가예상

※ 공주시 인구 : 11만2천명(2015년 5월말 현재)

◆ 사업체 증가현황 : 5,200개(2012년) / 7,500개(2014년) ... 출범초기보다 2,300개 업체 증가

그러나, 세종시의 국세업무 관할 행정청은 자치단체인 공주시 소재 공주세무서에서 조치원읍에 세종민원실을 두고 불과 2명이 단순한 세무민원업무만 처리하고 있어 종합적인 국세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민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접수 및 등록증 교부(공주세무서 세종민원실)

◆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특별징수 등 신고납부(공주세무서)

– 국세 부과현황 : 2012년(20,833건 / 1,430억원) / 2014년(39,891건 / 3,505억원) ... 출범초기보다 업무량 두배 이상 증가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납부 등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왕복 22km~70km의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으로 시간 낭비와 교통비용 증가가 고스란히 시민부담으로 가중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자가용 이용시(공주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 최소 25분(왕복50분) / 최대 50분 소요(왕복 1시간40분)

– 장군면(약11km / 2012.7.1.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 / 소정면 → 공주세무서(약35km)

◆ 버스 이용시(공주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 1시간 30분 소요(버스타후 5분정도 도보이동)

더불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써 그 위상을 날로 더해 가고 있고, 국세청마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주해 있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로서 유일하게 세무서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급격한 인구증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부동산 거래와 지속적인 사업체 증가에 부응한 납세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해 ‘세종세무서’ 신설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18만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고품격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과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세종세무서’를 신설하여 주실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6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Standing Special Committee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01 제28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의하여 2건은 원안, 2건은 수정 의결하였고, 폐회 중인 5월 14일에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다.

**02 제29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해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을 각각 원안 및 수정 의결하였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03 제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폐회 중인 6월 10일과 6월 15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교육감에게 메르스 전염병과 교육청의 감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의결하였다.

**04 제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하여 총 11건 지적하여 개선 및 시정토록 하였고, 7월 7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시장에 계충광농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다.

**05 전국 의회운영위원장 전국시도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5~8차 정기회** 참석 서금택 의회운영위원장은 경남(제5차, 3.31.), 광주(제6차, 4.30.), 수원(제7차, 5.29.), 부산(제8차, 7.23.)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했다. 서금택 위원장이 참석한 협의회에서는 광역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조정 건의안,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건의안,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조속이전 촉구 건의안,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등 총 8건이 채택되어 중앙 관련 부처 및 국회 등에 전달하였고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의회 운영위원회



서금택 위원장



김복렬 부위원장



고준일 위원



김원식 위원



김정봉 위원



장승업 위원



정준이 위원

# 행정복지 위원회



이충열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



김복열 위원



박영송 위원



서금택 위원



윤형권 위원



장승업 위원



01 제28회 임시회 기간중인 4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4월 7일에는 서천군 어메니티복지마을과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을 현장방문 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우리시의 복지정책 방향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02 제29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 15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5월 18일과 19일에는 양일간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승인 하였다.

03 제30회 임시회 기간 중 6월 3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정원을 33명 증원하여 1,415명으로 하고 시민안전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04 제31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6월 16일부터 6.23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역 현안사업 및 시장 공약사업 반영을 위한 시책 추진 상황, 계층별 차별화된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회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을 중점 감사하여 총 81건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개선 및 그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 지적사항 : 총81건 (주의13, 시정21, 개선30, 권고17)



# 산업건설 위원회

**01 제28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회는 「농업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의하여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4월9일에는 충광농원 관련부서 합동 현장방문에 나서 약취 저감을 위한 대책협약에 적극 나섰다.

**02 제29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15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 및 일부 개정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6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제2,3차에는 산건위 소관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중점 심사하였고, 6월3일에는 제1차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운영 계획 채택의 건으로 원안가결하였다.

**03 제30회 임시회 기간** 중 6월 10일에는 제2차 공공시설물 인수업무 보고 청취의 건으로 공공시설물 인수시 집행부의 철저한 감시와 관심으로 완벽한 이관이 될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04 제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6일에 산업건설위원회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71건을 지적하여 개선 및 시정토록 하였고, 7월 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 하였고, 「주민공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 하였다. 7월3일에는 2014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 가결하였다. 7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중 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심사하였다.



고준일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김선무 위원



김정봉 위원



안찬영 위원



이경대 위원



이태환 위원

# 교 위 원 회



박영송 위원장



이태환 부위원장



김선무 위원



안찬영 위원



윤형권 위원



이경대 위원



이충렬 위원

01 제28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9일 교육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을 심의하여 보류 1건, 원안가결 1건을 의결하였으며, 신설된 교육행정국 학교시설관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였다.

02 제29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월 20일 교육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등 6건과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7건을 심의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또한 5월 21일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03 제31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 7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한편, 7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등 4건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1건, 원안가결 3건을 의결하였으며, 7일~8일 교육위원회는 「2014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였다.

04 교육현장(세종여고 등 5개소) 현장방문 및 실태점검  
교육위원회는 6월 29일 제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각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날 현장 방문은 세종여고, 아름고, 양지중, 쌍류초, 연세초 5개소로서 의원들은 스마트스쿨 구축 현황,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현장 실태를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였다.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01 제29회 임시회기간중인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이 기간 중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02 제31회 정례회기간중인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 기간중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이태환 의원과 김정봉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고, 「2014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태환 위원장



김정봉 부위원장



고준일 위원



이경대 위원



윤형권 위원



장승업 위원



정준이 위원



##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안찬영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



장승엽 위원



윤형권 위원



김정봉 위원



김복열 위원



**01 제29회 임시회 종료 후 비회기** 중인 6월 3일에는 제1차 공공시설물 인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 채택 등을 심사하였으며 6월 4일에는 세종호수공원, 제5자동집하시설, 1-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제천을 방문하여 시설물 점검하여 주민 중심의 완벽한 시설물이 이관 될 수 있도록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02 제30회 임시회 종료 후 비회기** 중인 6월 10일에는 제2차 공공시설물 인수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인수 시 철저한 감시와 관심으로 완벽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6월 12일에 1-3생활권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재방문하여 완벽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언론에 비친 세종시 의회 Newspaper

중앙일보

2015년 04월 08일  
05면 (종합)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서천군노인복지관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 복지현장 방문... “노인문제 장기적 대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종열) 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등 15명이 7일 전국 최고의 명품 복지단지로 부각되고 있는 서천 어머니 복지마을과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을 현장 방문했다.

어머니 복지마을은 노인복지

관과 요양시설장애인복지관 및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등이 단지화된 시설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 노인들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제공하고 있다. 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종열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올 8

월 세종시에 준공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 노인들의 주거와 의료 문화 경제활동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지 화를 통한 종합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적으로 노인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규모>

(14.5\*13.2)cm

충청투데이

2015년 06월 15일  
15면 (지역)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에 시설물점검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 인수 공공시설물 현미경 검증

세종시의회 특이 중촌동 복검 점검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전영)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은 12일 1-3생활권 중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중촌동 복검)를 방문해 하자 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중촌동 복검 출입구부터 계단 등 외부시설부터 문화의 집, 체육관 등 내부시설을 둘러보면서 “중촌 주민관 안 보도블록이 약구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이 건물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

고, 외부계단의 높낮이가 달라 보행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시설을 점검에서는 “계단 난간과 확실히 고정돼 있지 않아 흔들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4층에 위치한 문화의 집 내부 바닥재가 많이 들떠 있는 등 바닥 시공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전영 위원장은 “지하에 위치한 체육관은 바닥에서 2m정도를 지하 수위”라며 “바닥 타파가 공사에서 확인이 됐으면 내부와 외부 모두 방수공사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sws@kbc.co.kr](mailto:sws@kbc.co.kr)

(12.7\*15.7)cm

금강일보

2015년 04월 24일  
12면 (지역)

## “오늘은 나도 의원, 어린이 의회 참석했어요”

연봉초 학생 세종시의회 방문 리더십 훈련·의회 체험 교육

세종시의회의장 이상진은 지난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연봉초 연봉초등학교 4학년 학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의회를 열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리더십을 훈련하는 등 할루미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시의회 출범 이후 일반의회를 지향하는 의정방향을 따라 처음으로 맞는 어린이들에 대한 개방으로 이날 체험행사는 각각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를 체험한 후 의원과 어린이들이 대회의 시간을 갖고, 의장을 대리한 윤형권 부의장으로부터 세종시의 삼박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 및 역할, 자치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등에 대해 배웠다.



세종시의회기 지난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연봉초 연봉초등학교 4학년 학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험행사로 어린이의회를 열었다. 참여 학생들이 국민례를 하고 있다.

윤형권 부의장은 “학생 여러분들은 세종시의 꿈이자 희망”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의회 있는 의회 체험 교육을 계기로 민주시민으로서

의 자질을 함양해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세종=김광은 기자 [kw8295@ggbc.com](mailto:kw8295@ggbc.com)

(21.3\*13.1)cm

충청투데이

2015년 06월 03일  
15면 (지역)

## 세종시의회 “혁신학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위 경기도 흥덕고 방문 벤치마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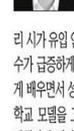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영송·사진) 위원과 교육위 관계자 등 17명은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혁신학교인 흥덕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흥덕고등학교는 2010년 3월 개교와 동시에 혁신학교로 지정됐으며 소통을 위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참여를 위해 교육과정 및 수업에 학생들의 활동을 녹여 내고 있다.

특히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창의적 수업 교육과정 운영, 학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업방식이 제공되는 배움 중심 수업, 각종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치 활동 강화 지원 등은 흥덕고의 손꼽히는 4대 혁신 교육프로그램이다.



박영송 위원장은 “우리 시가 유망 인구의 증가에 맞춰져 학교 수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혁신학교 모델을 고민하다가 급변 현장방문을 계획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세종형 혁신학교가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양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sws@kbc.co.kr](mailto:sws@kbc.co.kr)

(12.7\*9.4)cm

# 언론에 비친 세종시 의회 Newspaper

충청투데이

2015년 05월 18일 15면 (지역)



임상전 의장이 예비군훈련장에서 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 “철저한 총기관리·안전조치 만전을”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 예비군 훈련장 현장점검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15일 전동면에 있는 예비군 교육훈련장을 방문해 예비군훈련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지난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사격장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으며, 더구나 사격통제 장교와 조교가 아무런 제약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에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철

저한 총기 관리와 안전조치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후한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안전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quest@ccctoday.co.kr](mailto:quest@ccctoday.co.kr)

(19.2×15.7cm)

충청투데이

2015년 06월 12일 15면 (지역)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회원이 11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를 방문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 세종시의회 연탄공장대책 연구모임 현장방문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 회원은 11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의 연탄 공장을 찾아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했다. 서금택의원을 비롯한 박영송·이태환 의원, 시민 및 안성대 경제산업국장과 관련부서 담당과장, 이훈준 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 직원 등은 이날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를 방문해 강원연탄공장에 임대해 준 철도부지(완충녹지)가 불법 점용된 것에 대한 원상복구 협의와 주민 애로사항을 건의했으며, 경동개발을 방문해서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감등 해소사례 등을 파악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quest@ccctoday.co.kr](mailto:quest@ccctoday.co.kr)

(8.2×13.7cm)

충청투데이

2015년 06월 23일 15면 (지역)

## 임상전 의장 ‘세종세무서 신설’ 동분서주

축구 건의서 정부·국회 제출  
“세종시 인구 연말 20만 초과 예상  
공주세무서 이용 불편 해소해야”



통 및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전벽해의 도시이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 22km~70km 거리의 인근 공주세무서를 이용해야하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세종세무서’ 조기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상전 의장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써 그 위상을 날로 더해 가고 있고, 국제정마져 세종시에 이주해 있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로서 유일하게 세무서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강조하면서 “세종 세무서가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가 일심동체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민간단체에서는 오는 6월말 국회, 총리실 및 관계부처에 18만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은 주민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으로 ‘세종세무서’ 조기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시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세종=황근하 기자 [quest@ccctoday.co.kr](mailto:quest@ccctoday.co.kr)

(19.2×10.7cm)

한국일보

2015년 06월 16일 27A면 (지역)

## “세종에 제2국립의료원 유치하자”

최정복기자 [cjb@hankookilbo.com](mailto:cjb@hankookilbo.com)



전염병에 대한 격리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무한 세종시에 제2국립의료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권(사진) 세종시의원은 15일 열린 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전염병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세종시는 의료시설 기반이 너무도 취약하다”며 “제2국립의료원 유치를 통해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윤 의원은 “세종과 인접한 오송에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가 있고, 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도 어진동에 입주했다”며 “제4생활권에 조성 예정인 의료복지타운을 활용한다면 국립의료원 등 국가차원의 의료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훈준 세종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토지소유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국가차원의 의료기관 유치를 함으로써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13.7×6.0cm)

# 세종시의회, 집행부 '숨은 문제' 개선에 한목소리

세종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인 행정사무감사가 이 지날 16일부터 보름가량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행정기간의 절반이 지나면서 의원들이 '한 칸' 열린 사안들이 쌓여가고 있다. 이에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에 대해 짚어봤다.

## 담당자 업무소홀로 20억원 가까이 날릴 판 '12~14년' 공무원연금 市 부담액 과다 납부

이번 행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사안은 공무원연금 부담액과 관련된 市의 비효율적 예산 운용이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은 소득월액의 7%, 기관(세종시청)은 보수예산의 7%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론상으로는 각자가 1대1로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실제 각 지자체의 납부 양상을 보면 45%대 55%(기관부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종시의 전신인 연기군 시절인 2010년과 2011년에는 54.3%와 53.8%를 각각 납부했다. 그러나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는 57.4%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무려 62.1%를 부담했다. 지난해에도 56.4%의 부담률을 나타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2012년 2억7800만원, 2013년 13억2300만원, 2014년 3억1600만원으로 3년간 총 19억 1700만원을 연금관리공단에 더 낸 셈이다.

이 같은 과오납과 관련, 총무과 관계자는 "2012년 7월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위상이 격상되는 혼란기에 (착오로)인건비를 과다하게 잡았다가 143억원이 불용처리되면서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의 일처리 소홀은 문책 대상이다. 과대학에 잡힌 인건비 예산을 10~11월경 정리추경을 통해 삭감했다하면 충분히 과오납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난 23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중간점검] 지적됐던 사안·제안 살펴보니 비효율적 예산운용·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등 지적 '성과'

문제를 제기한 박영송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담당부서의 무책임으로 인해 기관부담액을 더 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사감조정을 통해 세밀하게 공무원 보수예산을 편성에 과태납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정보화담당관 CCTV몰아주기 의혹 제기

정보화담당관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에서는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의원들은 작년과 올해 CCTV입찰·나찰현황을 보면, 조달등록된 12개 업체중 D통신과 S사에 나찰이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업체 선정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 사무용품 터무니없는 고가 구입... '비싸게 사주기' 의혹

시 총무과의 고가 물품구매도 도마위에 올랐다. 예를 들면, 한 공무원은 조치원내

한 문구점에서 제본기를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면서 38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의원들이 해당 매장에 확인해 본 결과 24만 6천여원짜리였다. 34%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

이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품구매 전수조사를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고발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매년 16억 7천만원 투자에도 총괄농원 약취 그대로...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산간위(산간건설위원회) 행정에서 김정봉의원은 "총괄농원의 수질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해 매년 16억7천만원을 투자해 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수질 개선효과 등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선진 분뇨처리방법 도입과 악취저감자원 순환시스템 설치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1·1생활권 고온등 악취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야

분양설명서에 없던 돈사문제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1·1생활권(G1운동)에 대한 악취해결책 마련도 촉구됐다. 김선무 의원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악취 포집기를 활용한 수치측정 등을 통해 위반식 고발과 폐능 보상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 세종에서 '모텔'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장애인이거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배려 부족도 집타의 대상이 됐다.

안전행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에서 의원들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어 모텔을 대체시설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 시민인권 보호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행복위 의원들은 "법적사항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관내에 113개소에 달한다"며 "시 소유재산은 설치 예산을 세우고 학교 등 공공기관은 협조공분 등을 발송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 월 5만원인 부부장애인 179명의 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신상두 기자 sdshin@goodmornigg.com

05. 5-34. 33cr

## 중도일보

2015년 05월 29일 08면 (지역)



세종시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하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16.9\*6.8)cm

# 세종시 가볼만한 명소



## 세종호수공원

세종호수공원은 국내최대의 인공호수로 크기가 축구장의 62배, 평균 수심이 3미터이다. 세종호수공원과 어울리는 국립세종도서관, 그리고 배경으로 펼쳐지는 전월산의 모습은 한폭의 그림이다. 세종호수공원에는 다양한 축제의 공간인 축제섬, 국내 최고의 수상무대가 될 무대섬, 도심 속에서 해변을 연상할 수 있는 물놀이섬,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태습지가 있는 물꽃섬과 습지섬 등 5개의 인공섬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호수주변에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세종시민들이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4-123일원
-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4-114 (제2주차장)

## 베어트리파크

10만여평 대지에 1,000여종에 이르는 꽃과 나무들이 아름다운 베어트리파크는 나무와 곰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베어트리파크의 상징인 150여 마리의 반달곰이 재롱을 부리는 반달곰

동산과 공작, 꽃사슴등이 반기는 애완동물원, 그리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꽃과 나무, 희귀식물 등 다양한 테마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동물이 있는 수목원으로 가족나들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신승로 217(송성리 8-5)
- ☎ 044. 866. 7766
- 🌐 www.beartreepark.com



#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의회소식지인  
「세중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이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의회에 바라는 글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 증명사진 및 관련사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보내실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우) 339-70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담당자 전성수)
- 전 화 | 044. 300. 7242 • 팩 스 | 044. 864. 0589 • 이메일 | 77jss@korea.kr



# 세중의회 소식

2015. 8. | 통권 제8호 |

발 행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공보담당)  
발 행 일 | 2015년 8월 통권 제8호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전 화 | 044-300-7242  
홈페이지 | www.council.sejong.go.kr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http://council.sejong.go.kr>